

칼럼

임성욱 시인·사회복지학박사



전 국민의 철퇴 맞을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를 대상으로 전면전을 선포했다. 정부가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의협과 조율을 하지 않은 채 강행했다면서 말이다.

의료 활동을 멈춰서리도 문제인 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짓거리들이다. 의사가 누구인가. 국민들의 건강을 돌보아야 하는 직종이 아닌가.

그야말로 국가와 사회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으며 공부해서 의사고시를 합격 후 소정의 수련의 과정을 거쳐 신을 대신해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도록 한 것 아닌가.

때문에 무한한 권한을 법적으로 줬다. 수입도 일반 다른 직종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평생 직업도 보장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런 몰상식한 행태를 보여서야 되겠는가.

의사란 과거에는 봉사 직이었다. 조선시대의 의술의 주류는 한의였다. 그들은 돈이 있는 사람으로부터는 적절한 치료비를 받았지만 빈곤한 사람 등에게는 무료진료를 해줬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야말로 봉사 직이었다. 때문에 존경을 받았던 것이다.

오늘날에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누구나 주지하다시피 의사라는 직종은 고소득 직종이다. 그런데도 이런 추한 행동을 해서야 되겠는가.

다행히 같은 의료인으로서도 한의사회, 치과의사회 등은 물론 약사회, 간호사협회 등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특히 대형병원이 중심인 대한병원협회조차 개원의가 중심인 의협의 행동에 동조 않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된다.

성서에도 "욕심이 임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고 했다.

돈벌이에 너무 눈이 어두우면 더 많은 것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각심하길 바란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상복부 초음파가 무엇이었기에 그런가. 이는 간, 담도, 담낭, 비장, 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다.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이 적용되었다.

그런데 금년도 4월부터는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상병별 진단 시, 1회에 한해 보험이 적용된다.

단, 만 4세 이상 만성B형 또는 C형 간염환자, 간경변 환자, 담낭 용종, 고위험환자 등은 추가검사에

도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험이 적용됨으로써 상복부질환자 307만여명의 의료비 부담이 기존의 평균 6~12만원에서 적용 후에는 2~6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좀 더 상세히 초음파 비용부담의 변화를 보면,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기존 159,000원이 88,500원으로,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104,000원에서 46,900원으로 일반병원의 경우 84,000원에서 36,000원, 의원, 의원외의 경우 61,000원에서 28,600원으로 낮아진다.

때문에 환자들이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게 사실이다. 돈이 없다고 해서 치료를 못 받는 일반인은 가능한 한 좀더 보자는 게 문재인 정부의 생각이다.

이 얼마나 좋은 발상인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했겠는가.

이렇게 적용한다고 해서 의사들이 굶어죽는 것도 아니잖은가. 단지 의사들의 욕심만 아주 조금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저러들 난리다.

마치 자신들이 아니면 대한민국 의료는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만약 이렇게 방만한 행동을 계속 한다면 해외 의료개방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각설하고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불미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본연의 의료행위에 충실하길 바란다. 전 국민들의 철퇴를 맞기 전에.

社說

일본 뇌염 모기 주의해야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 (Culex tritaeniorhynchus)가 확인돼 전국에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혔다.

일본뇌염 경보체계는 주의보·경보로 나뉘는데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당해연도 최초 채집됐을 때 주의보가 내려진다.

앞으로 작은빨간집 모기가 1일 평균 500마리 이상으로 늘거나 환자 발생,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분리될 경우 등에 경보로 상향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지난해 일본뇌염 환자 9명중 2명이 사망했다.

성인이더라도 축사 종사자나 국외 오염지역 여행객 등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일본뇌염 모기를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기 때문에 야외 활동 중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야외 활동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 흡혈하지 못하게 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고,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가정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고,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수면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봄철 미세먼지 등 철저하게 대처하자

봄꽃들이 세상을 물들이며 우리의 눈과 마음을 즐겁게 만든다. 산과 들로 마음껏 서로서로가 힐링하면서 그동안 겨우내 움추렸던 새로운 나래를 펼치며 살맛나는 삶을 즐긴다.

이럴 때 일수록 즐거움의 뒤편에도 또한 우리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 있다. 봄철 위생관리와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미세먼지다. 특히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잡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의 부유물질로 호흡기와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다. 급성 노출 시에는 기도의 자극으로 기침과 호흡곤란을 발생하고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 등이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실외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

하고 외출 시에는 손과 코를 잘 씻는 것이 좋다. 둘째, 도로변이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운동을 삼가는 것이 좋다. 셋째, 실내에서 흡연을 하거나 촛불을 켜는 것은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피해야 한다. 또한 미세먼지 주의와 함께 봄철 식중독을 조심해야 한다. 날씨가 풀리면서 봄철 식중독 주의가 요구된다. 봄철 식중독의 주된 원인은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한 탓에 음식물 취급이 소홀해지고 야외활동을 하는 동안 식품보관이나 관리가 제대로 안된 이유라고 한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개인 스스로가 점검하고 건강한 식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

양성훈 / 곡성119안전센터 지방소방장

주택용 소방시설 '우리집 안전지킴이'

지난 3월 29일 새벽 5시 40분경 부산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렸다.

이 화재로 아버지와 어린 아들 3명이 연기에 의한 질식으로 모두 숨진 비극이 일어났다.

이중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진입이 곤란한 문제도 있었지만, 만약 '주택용 소방시설'이 있었더라면 이와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발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초기 진화에 사용되는 '소화기'를 말한다.

이처럼 화재를 초기에 인지하게 하고 막도록 도와주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소방당국

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크게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여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일 것이며, 작게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매일 마스크를 통해 안타까운 사고를 접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들을 다른 사람들의 일로만 느끼고 살아간다.

그러나 화재를 비롯해 모든 사고가 내 주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비한다면 내 가족의 안전을 책임지는 '우리집 안전지킴이'가 될 것이다.

김병성 /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信使可覆

믿을 신 하여금 사 율을 가 다시

信使可覆

▷ 뜻 : 믿음은 움직일 수 없는 진리(眞理)이고, 또한 남과의 약속(約束)은 지켜야 함.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민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